

2014년 지방직 9급 국어 C책형 해설

제공 : 유 두 선 교수

1. 보는 것과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야 한다.

- 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 겉 모양이 좋으면 내용도 좋다는 뜻
- ② 붉은 콩에 싹이 날까. -> 절망적인 경우에 이름
- ③ 빛 좋은 개살구 -> 겉 모양은 그럴 듯하니 좋으나 실속이 없다는 뜻.
- ④ 뚝배기보다 장맛이 좋다. -> 겉으로 보기에는 하잘 것 없으나 내용은 겉에 비해서 훌륭함

정답 ③

2. ① ‘뒤컨’과 ‘뒤뜰’의 순서가 바뀜

- ② ‘네모’와 ‘넘기다’의 순서가 바뀜
- ③ ‘얕다’와 ‘엷되다’, ‘여름’과 ‘에누리’의 순서가 바뀜

정답 ④

3. ‘부상은 물 위로 떠오른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떠다닌다는 부유(浮遊)가 적당하다.

정답 ③

4. 둘째 단락에서 ‘전통을 찾고, 이를 계승하고자’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어야 한다.

정답 ②

5. ① ‘뵈었습니다’의 준말은 뵈었습니다.

- ③ 남의 말을 전할 때는 ‘대요’를 쓴다.
- ④ 받침이 없는 명사 뒤에는 ‘예요/여요’를 쓴다.

정답 ②

6. 주어진 시조는 망국의 한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조다.

- ① 서리지탄 -> 나라가 멸망하여 옛 궁궐터에 기장만이 무성한 것을 탄식한다는 뜻
- ② 만시지탄 ->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 ③ 망양지탄 ->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④ 비육지탄 ->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정답 ①

7. ④ ‘조심하세요’도 명령투의 말이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로 고쳐야 한다.

정답 ④

8. ① 완결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삭제하면 안 된다.

- ② 원래의 뜻으로 해설할 수 없다. 바꿀 필요가 없다.
- ③ 연결이 자연스럽다.

- ④ 관용어가 전통 문화를 잘 보여 준다는 내용은 주제와 관련이 없다. 삭제하는 것이 좋다.

정답 ④

9. ① ㄴ첨가 후 비음화 되었다.
② [불뽕더위]가 바른 발음이다.
③ ‘ㅅ’이 대표음 ‘ㄷ’이 된 후에 비음화 되고 된소리되기가 되었다.
④ 연음과 ㄴ첨가가 일어난다.

정답 ②

10. 중국의 정치 유물은 장대하고 권위적인 것을 말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른 문화를 발전시켰음을 말하고 있다.
㉠에는 향유, 구축, 행사가 들어갈 수 있고
㉡에는 정략적, 타협적이 들어갈 수 있다.
㉢에는 필요가 들어가야 한다.

정답 ③

11. ① 馬耳東風 ② 走馬看山 ③ 天高馬肥 ④ 切磋琢磨

정답 ④

12. ② 주스 ③ 로켓 ④ 사인

정답 ①

13. 보기는 ‘느낌, 생각 따위가 깊이 느껴지거나 오래 남아 있다’의 의미
① 버릇이 되어 익숙해지다.
② 생각이나 안목이 매우 좁다.
③ 냄새가 스며들어 오래도록 남아 있다.

정답 ④

14. ‘만남’과 ‘보기’는 서술성이 있기때문에 명사형으로 품사는 동사이다. ‘한’은 명사, ‘뽕’은 의존명사에 해당한다.

정답 ②

15. 첫째 단락의 예술의 어원에 대해 말하고 있다. 둘째단락 예술의 개념이 변화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정답 ④

16. ① 남+기+어+지+ㄴ+적+도+물리+치+었+겠+네(12개)
② 너+를+위+하+여서+땀+을+흘리+었+어(10개)
③ 흠치+어+가+았+을+수+도+있+겠+군+요(11개)
④ 달+ㄴ+팔+죽+이라도+가지+어+오+아야+지(10개)

정답 ①

17. (가)에서 ‘상품은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와 (다)에서 ‘상품은 독자적인 인격체가 된다.’가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가) 뒤에 (다)가 온다. (라)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된다’와 (나) 인간 및 인간들 간의 관계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와 관련 있다. 즉 (라)뒤에 (나)가 온다.

정답 ②

18.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해결 방안으로 일회 용품을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다.

정답 ②

19. ① 글의 마지막에 상당량의 정신에너지와 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

② 첫째단락의 끝 부분에 책을 읽는 기능은 덤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했다.

③ 둘째 단락에 책 읽기는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낳는다고 했다.

④ 둘째 단락 중간에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고 했다.

정답 ①

20. 글의 앞 부분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은 마음에게 흠어지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성과를 내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집중과는 정반대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작가가 말하려는 중심 내용은 ‘집중’이 된다.

정답 ③

총 평

2014년 지방직은 문법·어휘 10문항, 독해 8문항, 한자 2문항이 출제되었다. 문학은 전혀 출제되지 않은 점과 독해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 특이 사항이다.

문법·어휘에서 명사형과 명사를 구별하는 문제와 형태소 개수를 세는 문제가 새롭게 출제되었다. 문장을 주고 어법에 맞게 고치는 문제는 수능 문제 유형에 해당한다. 외래어 표기는 암기해야 할 사항이니, 수험생들은 늘 주의해야겠다.

지방직 문제는 3년간 계속 독해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독해는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다. 독해법을 익혀서 빠르고 정확하게 지문 읽는 법을 터득한 후에 문제 푸는 해법을 익히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2015년 수험생들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